

용융염내에서의 바륨페라이트 결정의 생성 및 그 자기적 특성

부산대학교 정지형* · 김창곤 · 윤석영 · 김태옥

Formation Process of Barium Ferrite Crystallites in Molten Salts and Its Magnetic Properties

Pusan University J.H. JUNG* · C.G. KIM · S.Y. YOON · T.O. KIM

1. 서론

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고용량, 고집적, 단소화를 실현할 수 있는 재료의 개발 및 특성향상을 도모하고 있다. 갈수록 정보용량의 대용량화, 고집적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며 흐름이다. 바륨페라이트는 그 용용면으로써 microwave devices, magnetic recording media가 있으며 본 연구는 잘 분산된 육각판상의 바륨페라이트 분말을 제조하여 고집적화를 이룰 수 있는 수직자기기록용 매체로써 사용하고자 한다. 분말특성으로써 이방성을 가지도록 제조하는 방법 중에서도 비교적 쉽게 형상을 제어할 수 있는 Molten Salt 법[1-3]으로 육각판상의 바륨페라이트를 제조하고자 한다.

2. 실험 방법

특급시약 Fe_2O_3 와 공침법에 의해 제조한 $\delta\text{-FeOOH}$ 를 각각 BaCO_3 와 0.5NaCl-0.5KCl과 혼합하여 알콜에서 8시간 ball milling한 후 650°C에서 1050°C까지 2시간동안 반응시킨 후 더운 이온수로써 Cl^-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수세하였다. 여기서 $\delta\text{-FeOOH}$ 는 공침법에 의해 제조하였다. 이때 염과 산화물의 몰비는 1:1로 하였다.

3. 실험 결과 및 고찰

$\delta\text{-FeOOH}$ 를 precursor로 사용한 경우에는 750°C에서부터 바륨페라이트의 주peak가 나타나며 Fe_2O_3 의 주peak는 상당히 감소함을 보인다. 950°C에서부터는 단상의 바륨페라이트가 생성되며 이때의 자기적 성질은 포화자화값이 47.27emu/g이며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변화가 없었다. 또한 보자력은 온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950°C에서 4042Oe이었다. 한편 Fe_2O_3 를 precursor로 사용하여 얻은 바륨페라이트 분말의 특성은 XRD pattern에서 850°C에서 약간의 바륨페라이트의 주peak를 보이고 완전한 단상의 바륨페라이트는 $\delta\text{-FeOOH}$ 를 precursor로 사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950°C에서 나타났다. 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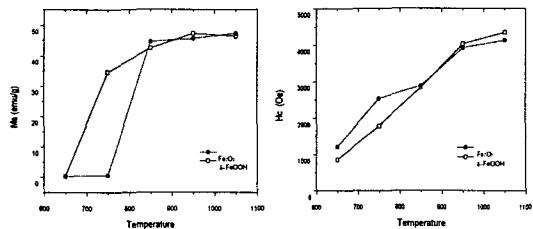


Fig.1 Magnetic properties of Ba-Ferrite particles by using Fe_2O_3 or FeOOH as precursor

의 자성적 특성은 δ -FeOOH를 precursor로 사용한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. 중요한 차이점은 SEM 사진에 의한 morphology로써 깨끗한 육각판상의 바륨페라이트는 δ -FeOOH를 precursor로 사용한 경우에서만 보여지고 있다. 이러한 morphology상에서의 현저한 차이는 δ -FeOOH가 육각판상의 형상을 가지고 200~300°C에서 열분해을 일으켜 Fe_2O_3 가 되지만 육각판상의 형상은 그대로 유지하며 OH가 표면에서 빠져나오므로 해서 표면이 다공성을 지니게 된다.[4] 이로써 용융염내에서 바륨이온이 표면에서 내부로의 확산이 용이하고 염이 액상을 형성하여 확산이 용이하게 하여 고상에서 보다 저온에서의 합성이 가능하다.[1-3,5] 용융염에 있어 생성입자의 형상은 출발물질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Kimura[3,6] 등이 제시한 이론에 의한다면 δ -FeOOH를 precursor로 사용한 경우는 탄산바륨이 δ -FeOOH보다 염에 대해 용해도가 커서 바륨이온이 용융염내를 이동 δ -FeOOH의 표면에서 반응하는 메카니즘이라고 생각되어진다.

4. 결론

δ -FeOOH 또는 Fe_2O_3 를 precursor로 사용하여 얻은 바륨페라이트 분말을 비교할 때 δ -FeOOH를 사용한 것이 morphology 가 육각판상으로 우수하였고 자기적 성질은 두 경우가 비슷하였으며 δ -FeOOH 일 경우가 750°C에서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바륨페라이트가 생성되었으며 950°C에서부터는 포화자화값의 변화가 없었다.

5. 참고문헌

- [1]D.G. Wickham, *Ferrites*:Proc.Int.Con.,pp.105-107July(1970),Jpn
- [2]R.H. Arendt et al, "Lead Zirconate Titanate Ceramics from Molten Salt Solvent Synthesized Powders", *Mat.Res.Bull.* vol.14,pp.703-709(1979)
- [3]T.Kimura et al,"Morphology Control of Electronic Ceramic Powders by Molten Salt Synthesis", *Adv.in Ceram.* vol.21(Ceram.Powd.Sci.),pp169-177(1987)
- [4]T.Ishikawa et al,"Characterization of the Thermal Decomposition Products of δ -FeOOH by Fourier-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and N_2 Adsorption", *J.Chem.Soc.Faraday Trans*, 88(8),pp1173-1177(1992)
- [5]T.Kimura et al, "Products of Reaction Between PbO and Nb_2O_5 in Molten KCl or NaCl", *Comm.Am.Ceram.Soc.Oct.*(1993)
- [6]T.Kimura et al, "Preparation of Ferrite Power by Flux Method", *Ferrites*:Proc.Int.Con. ,pp.27-29,Sept(1980),Jp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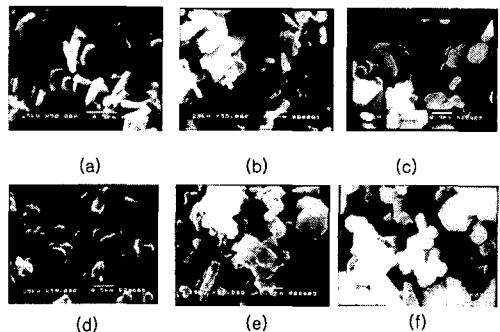


Fig.2 SEM photogrphs of Ba-ferrite powder obtained by heating a mixture of δ -FeOOH and $BaCO_3$ [(a),(b), (c)] and Fe_2O_3 and $BaCO_3$ [(d),(e),(f)] at 850, 950, 1050 °C for 2h ,respectively in $NaCl-KCl$ ($F=1$).